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활동백서



홍순서 대표의원



박용갑 부의장



김춘수 의원



유은희 의원



백슬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 발간사



홍 순 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서구만의 특화된 정책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서구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정책연구 용역,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백서는 지난 1년간 연구회의 발자취와 정책 제안, 현장 방문, 주민과의 소통 노력 등을 담아내어, 향후 서구 반려동물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따뜻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강범석 서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회가 제안한 여러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어 서구민 혜택 증진을 위한 장래협약 체결 등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활동한 박용갑 부의장님, 김춘수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회 활동에 전문성을 채워주신 주경숙·김중휘·이효정·이재민·김용구·고준위·이다슬 자문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려동물 정책 진단과 사업 점검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서구청 경제국 윤경태 국장님, 경제정책과 백승호 과장님, 장채현 축산동물팀장님과 오현이·고민수·우지원 주무관님과 연구회 담당자인 김영덕 정책지원관께도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주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 더욱 따뜻한 반려동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두가 행복한 생명존중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목 차

I. 연구단체 현황 .....	2
II. 연구단체 활동비 집행내역 .....	4
III. 연구배경 및 목적 .....	5
IV. 연구활동 개요 .....	7
V. 세부연구활동 .....	9
1. 제1차 정책간담회	
2. 제1차 현장방문: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3. 제2차 정책간담회 및 자문위원 위촉	
4. 연구회 조례 공동발의( ) :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5.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6.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 발대식	
7. 제2차 현장방문: 반려동물 장례실태 점검 시찰	

## 목 차

- 08. 연구회 조례 공동발의(II):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
  - 09.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개최: 댕이냥이와 함께 하는 힐링산책
  - 10.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협약식
  - 11.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 12.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VI. 반려동물친화 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6
- 
- VII. 언론 보도(지면) ..... 49

등록번호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
등록일자	2025. 11. 25.
결재일자	2025. 11. 25.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결재	담당자	전문위원
협조	대표의원	

2025년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최종) 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연구활동(중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대표자	홍순서 의원
연구주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목적	반려동물 친화도시 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서구 반려동물 정책 점검 및 반려문화 규범 마련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부서(축산동물팀), 전문가, 유관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재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주요 현안을 점검·보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및 규범 마련</li><li>-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기과제와 중장기 방안을 연구</li></ul>
연구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선8기 동물복지 공약 및 추진현황, 반려동물 사업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li><li>- 반려동물 관련 규범·문화 교육 및 정착, 반려동물 놀이터 및 장레식장,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장 중심적인 반려동물 유통구조 개선 및 공공 재입양률 제고, 반려동물 등록 비율 제고,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li></ul>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 중간보고서

2025년 11월 25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홍순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귀하

#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 I 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 활동기간: 2025. 2월(승인일) ~11. 30.
- 연구주제
  -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서구 반려동물 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 구성의원: 총 5명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대표의원	홍 순 서	서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2	의 원	박 용 갑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안전위원회)
3	의 원	김 춘 수	서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3	의 원	유 은 희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안전위원회)
4	의 원	백 슬 기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안전위원회)

※ 원활한 연구활동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예정

□ 자문위원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자문위원	주 경 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
2	자문위원	김 중 휘	반려동물공존센터 부회장
3	자문위원	이 효 정	(사)도로시지켜줄개 대표
4	자문위원	이 재 민	연희동물병원 원장
5	자문위원	김 용 구	범퍼몰 대표, 반려인
6	자문위원	고 준 의	(사) 행복늘봄회 회장, 반려인

□ 연구회 일정(안)

2025년 연구회 활동 계획(안)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회 운영 및 연구 방향 설정											
서구반려동물정책 점검 및 과제 연구											
전문가유관기관 등 초청 간담회 및 정기회의											
주요 현안 현장방문											
연구결과 도출 및 연구보고서 작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I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연구단체 활동비 집행현황

예산액 : 4,000,000

(단위: 원)

연번	제목	품의금액	발의일자	월집행액	총집행액	총집행률	잔액
1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활동에 따른 현수막 제작	19,800	2025-03-25				
2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비교 시찰 활동에 따른 간담회 개최	463,000	2025-03-25	532,800 (3월)	532,800	13%	3,467,200
3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활동에 따른 의원 여비 지출	50,000	2025-03-25				
4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제2차 간담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	492,100	2025-04-24	492,100 (4월)	1,024,900	26%	2,975,100
5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제2차 비교 시찰 활동에 따른 간담회 개최	850,000	2025-08-01	850,000 (8월)	1,874,900	46.9%	2,125,100
6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에 따른 간담회 개최	299,000	2025-10-29	519,000 (10월)	2,393,900	59.8%	1,606,100
7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행사 경비	220,000	2025-10-31				
8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개최	441,900	2025-11-09	1,602,900 (11월)	3,996,800	99.9%	3,200
9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자료집 추가 제작 및 연구회 활동백서 제작	1,161,000	2025-11-25				

### Ⅲ 연구배경 및 목적

#### □ 연구배경

-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증) 생활수준 향상과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구 역시 2024년 5월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이 약 4만 5천마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인천광역시 서구\_반려동물등록현황(2024. 5.16 기준)

- (반려동물의 긍정적 측면)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이른바 ‘펫코노미 (Pet+Economy)’ 로 불리는 신규 산업과 시장이 창출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양육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필요성)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배설물 처리 등’ 반려동물 관리 문제와 반려인/비반려인간 갈등, 낮은 반려동물 등록율, 낙후된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과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유기하는 생명 존중의식 부족 및 반려동물 권리 침해, 낮은 재입양율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책임있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지내는 공존 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본 연구단체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향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 (서구 반려동물 보호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민선8기 동물 복지 공약 및 추진현황, 반려동물 사업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실태와 공존 방안 모색) 공동주택 내 개짚음 및 층간·측간 소음 발생, 공공구역 내 배설물 처리, 반려견 목줄 및 맹견 등의 입마개 착용, 반려동물의 타인 상해시 책임 문제 등 책임있는 사육 문화 조성 및 규범 마련
- (동물보호권 증진 방안)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문제, 유기 동물 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반려동물 관련 규범·문화 교육 및 정착, 반려동물 놀이터 및 장례식장,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장 중심적인 반려동물 유통구조 개선 및 공공 재입양률 제고, 반려동물 등록 비율 제고,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사업,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 IV 연구활동 개요

- 연구주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 날 짜: 승인일 ~ 2025. 11. 30
- 참여의원: 홍순서 대표의원  
박용갑 의원, 김춘수 의원, 유은희 의원, 백슬기 의원
- 연구활동 현황

연번	연구활동	일 시	내 용
1	제1차 정책 간담회	3월 24일 (09:00)	- 2025년 신규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비롯한 서구 동물보호 사업 종합점검 및 토론 - 민선8기 공약 중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변경 추진 관련
2	제1차 현장방문	3월 24일 (11:00)	-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상황 시찰 및 관계자 간담회
3	제2차 정책간담회 및 자문위원 위촉	4월 24일 (11:00)	-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토론 - 연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
4	조례 공동발의	5월 30일	-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유은희 의원, 공동발의: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의원)
5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	6월 15일 (10:00)	-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광장(비추온마당)에서 반려견순찰대 선발 심사에 참여
6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	6월 22일 (14:30)	-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대’ 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소통 체계 구축
7	제2차 현장방문(반	8월 5일	- 관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 2개소 방문(어게인·더포에버), 반려동물 장례시설 및 절

	려동물 장례실태 점검 시찰)		차, 운영현황 점검 및 간담회 실시
8	조례 공동발의	9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공동발의(대표발의: 홍순서의원, 공동발의: 박용갑·김춘수·유은희·백슬기 의원)</li> <li>- 주요내용: 1)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인식, 2)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3)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와의 업무 협약 통한 서구민 혜택 증진 법적 근거 마련</li> </ul>
9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개최	9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댕이냥이와 함께 하는 힐링산책 개최</li> <li>- 주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반려동물공존센터</li> <li>- 내용: 반려인, 비반려인 참여 산책행사 진행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캠페인 진행</li> </ul>
10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협약식	10월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 업무협약식</li> <li>- 협약: 서구 ↔ 더포에버, 어게인</li> <li>- 내용: 1) 서구민의 모든 반려동물의 화장비용 20% 감면, 2) 화장 후 봉안할 경우 봉안비용 10% 감면</li> </ul>
11	원신근린공 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1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li> <li>- 내용: 반려인구 증가에 맞춰 반려견 전용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서구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li> </ul>
12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11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li> <li>- 1) 대규모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구 특성상 권역별로 분산해 5만㎡ 내외의 소형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전략 제안</li> <li>- 2) 연구회 연간 활동 종합 토론</li> </ul>

## V 세부 연구활동내용

### ①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제1차 정책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5. 3. 24.(월) 09:00~10: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2층 의원간담회장
- 참 석 : 약 10명(연구단체 의원, 관계 공무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좌장]
  -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토론주제
  - (주제 1) 2025년 신규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비롯한 서구 동물보호 사업 종합점검 및 토론
  - (주제 2) 민선8기 공약 중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민선8기 공약사항 변경 추진 관련
- (주제 1) 2025년 신규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비롯한 서구 동물보호 사업 종합점검 및 토론 세부 내용
  - (홍순서 대표의원) 반려견 순찰대 사업의 도입 취지와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방법활동이 사회적 갈등 해소와 펫티켓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순찰대 선발 기준과 운영 방식,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함
  - (박용갑 부의장)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 조성 계획의 필요성과 주민 체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기존 반려동물 놀이공원 및 장묘 시설 공약이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된 배경을 짚고, 민간 장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장례비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질의함.

- (유은희 의원) 유실·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TNR(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 예산의 구체적 집행 내역과 실효성,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 (김춘수 의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 예방적 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함.
- (백슬기 의원) 반려동물 문화교육, 펫티켓 캠페인, 반려동물 관련 조례 제정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
- (종합토론)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확충, 공공-민간 협력,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등 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함.

○ (주제 2) 민선8기 공약 중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변경 추진 관련 세부 토론 내용

- (홍순서 대표의원) 공약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부지·예산 현실적 한계를 짚고, 대신 3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민간 장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장례비 지원 등 단계적 추진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함.
- (박용갑 부의장) 기존 공약의 장묘시설 직접 설치에서 민간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역 여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 장묘업체 서비스의 질 관리, 장례비 지원의 투명성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함.

- (유은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직영 동물보호센터) 조성의 2단계 추진 계획에 주목, 현재 보호센터 운영의 한계와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함.
- (김춘수 의원) 반려동물 문화교육시설,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비인프라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약 변경 이후에도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소프트웨어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제안함.
- (백슬기 의원) 공약 변경 과정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공약 이행평가단의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와 사후 평가체계 구축을 촉구함

○ 관련사진



## ②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제1차 현장방문> 개최

○ 일 시 : 2025. 3. 24.(월) 11:00~18:00

○ 장 소 : 오산반려동물 테마파크

○ 참 석 : 약 10명(연구단체 의원, 관계 공무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좌장]

-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현장방문 주요 발언 요지

- (홍순서 대표의원)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의 다양한 시설(놀이터, 교육 시설, 동물병원 등)과 운영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 조성은 필수” 입을 강조함. 서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구상과 주민 체감형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박용갑 부의장) 오산테마파크의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교육시설 운영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장점과 서구 적용 가능성, 시설 이용자 만족도,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김춘수 의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병원 등 복지 인프라의 통합적 운영에 주목하고, 서구 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연계한 입양 촉진, 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제안함.

- (유은희 의원)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과 펫티켓 캠페인의 효과성,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문화교육시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구 내 반려동물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언급함.

- (백슬기 의원) 반려인 편의시설, 놀이터 안전·위생관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운영의 세부 요소를 살펴보고, 서구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주민의견 수렴과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함.
- (종합토론)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서구에 적합한 반려동물 놀이터 및 복지 인프라 조성, 공공-민간 협력, 문화교육 확대,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함

○ 관련사진

제1차 현장방문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3.26)



### ③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제2차 정책간담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25. 4. 24.(목) 11:00~15:00
- 장 소 : 관내 음식점
- 참 석 : 약 20명(연구단체 의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좌장]
  -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 자문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 속
1	자문위원	주 경 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
2	자문위원	김 중 휘	반려동물공존센터 부회장
3	자문위원	이 효 정	(사)도로시지켜줄개 대표
4	자문위원	이 재 민	연희동물병원 원장
5	자문위원	김 용 구	범퍼몰 대표, 반려인
6	자문위원	고 준 의	(사) 행복늘봄회 회장, 반려인

#### ○ 토론주제

- (주제 1) 자문위원 위촉식
- (주제 2) 서구반려동물정책 점검 및 보완
- (주제 3) 공동발의 조례 제정 관련

○ (주제 1) 자문위원 위촉식

- 동물복지, 법률, 행정 분야 전문가 6명 위촉
- 위촉장 수여 및 자문위원 소감 발표
- 자문위원: 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 자문 최선 다짐, 정책 수립부터 현장 의견 반영 및 평가·피드백 체계 구축 강조

○ (주제 2) 서구반려동물정책 점검 및 보완

- (박용갑 부의장) 1차 간담회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주민의견 반영 보완 필요
- (김춘수 의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 주문
- (유은희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과 예산 집행 투명성 강조
- (백슬기 의원) 반려동물 문화교육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필요성 제기

○ (주제 3) 공동발의 조례 제정 관련

-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 (홍순서 대표의원) 생태계 균형과 주민 안전 위한 필수 조례, 타 지자체 사례 참고 강조
- (백슬기 의원) 벌칙 규정, 홍보, 행정 절차 명확화 및 상위법 정합성 검토 필요

○ (종합토론) 정책 점검, 조례 제정, 자문위원 참여로 서구 맞춤 동물복지 정책 보완·발전 합의, 차기 회의시 협업 성과 및 의견 수렴 결과 공유 예정

○ 관련사진

**제2차 정책간담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4.24)**



#### ④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조례> 공동발의

- 일 시 : 2025. 5. 30.(수)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연구단체 5인 공동발의
  - 대표발의: 유은희 의원(1인)
  - 공동발의: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 의원(4인)
  
- 제안이유 :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발생하는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금지구역 지정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라. 금지구역 표시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7조)

**인천광역시 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유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유은희·홍순서·박봉길  
김준수·백승기의원(5인)

관 설 자: 현승일·홍승환·김남원  
송 이·심우철·서지영  
정태완·김원진·김학엽  
김미연·이현종·고선희  
이영철 의원(13인)

**1. 제안이유**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제정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시구에 발생하는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금지구역 지정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관, 금지구역 표시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요청: 비물주요시 비첨부사유서 일부

다. 할 일: 환경관리과(환경정착팀) 할의 완료

##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 구역

4.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 인간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민특별시 석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관리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폐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관용한다.

제6조(관리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관리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구

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판에는 감시구역의 시설 유형과 유해양성물  
발생 인형 및 표지판의 취급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이주기 권지의 용보) 규정상인 유해양성물질 의이주기 감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구역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용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⑤ <서구 반려동물 순찰대 선발심사> 참석

- 일 시 : 2025. 6. 15.(일) 10:00~16:00
- 장 소 :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광장(비추온마당)
- 참 석 : 약 10명(연구단체 의원, 관계 공무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주요내용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2025년 6월 15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광장(비추온마당)에서 반려견순찰대(가칭 ‘우리마을 댕댕지킴이’) 선발 심사에 참여함.
  - 반려견순찰대는 서구에서 처음 도입하는 주민 참여형 반려동물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펫티켓 전파, 동물보호법 홍보, 생활안전 활동 등 3대 주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선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지원동기 등)와 2차 현장 실습심사(1km 산책 코스에서의 실제 행동 평가)로 진행되었음. 지원 자격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가족으로, 맹견 및 미성년자는 제외됨.
  - 연구회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책임감, 펫티켓 실천 의지,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반려견과 보호자의 현장 행동을 꼼꼼히 점검함.
  - 당일 선발심사를 통해 총 89팀이 선발, 선발된 순찰대는 6월 말부터 주 2회 이상 활동을 시작하며, 서구 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 관련사진

서구반려동물 순찰대 선발심사(6.15)



## ⑥ <서구 반려동물 순찰대 ‘서구 순찰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25. 6. 22.(일) 14:30~
- 장 소 : 서구청 지하대회의실
- 참 석 : 약 150명(연구단체 의원, 관계 공무원, 서구 순찰대 회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주요내용
  - 2025년 6월 22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서구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대’ 발대식이 개최됨.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의원들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순찰대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고,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지역사회 안전 활동 참여를 격려함.
  - 발대식에서는 순찰대원들에게 활동물품(조끼, 리드줄 등)이 배포되고, 안전 및 기초활동 교육이 실시됨. 선발 심사 과정 영상이 상영되어 순찰대의 취지와 의미를 공유함. 대표 순찰대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고, 참석자 전원이 단체 기념촬영을 진행함.
  - 순찰대 ‘서구 순찰대’ 은 앞으로 주 2회 이상 공원, 골목 등 지역 내 순찰을 하며 펫티켓 전파, 동물보호법 홍보, 생활안전 활동 등 3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연구회는 순찰대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 관련사진

서구반려동물 순찰대 '서구 순찰대' 발대식(6.22)



서구반려동물 순찰대 '서구 순찰대' 발대식(6.22)



㉞ 제2차 현장방문: 반려동물 장례실태 점검 시찰

○ 일 시 : 2025. 8. 5.(화) 09:30~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식장 2개소

- 어계인(인천 서구 오류동 434-119)

- 더포에버(인천 서구 대곡동 361-2)

○ 참 석 : 18명(소속 의원, 자문위원 및 연구용역담당자, 관계공무원 등)

- 홍순서(대표의원),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주요내용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관내 반려동물 화장터 2곳(어계인: 오류동 434-119, 더포에버: 대곡동 361-2)을 방문하여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시설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
-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모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인프라 실태 및 운영현황 점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관련 서구민 혜택 증진 방안 모색 ▲서구 반려동물 관련 사업 내용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 특히, 서구민 대상 장례비용 감면방안, 공공지원 정책 도입, 장례서비스 질 향상,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 관련사진

반려동물 장례실태 점검시찰(더포에버)



반려동물 장례실태 점검시찰(어게인)



## ⑧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조례> 공동발의

- 일 시 : 2025. 9. 12.(금)
-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 발 의 : 연구단체 5인 공동발의
  - 대표발의: 홍순서 의원(1인)
  - 공동발의: 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4인)

### ○ 제안이유

- 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장례환경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나. 그러나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불법 매장,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 보호자가 겪는 상실감, 고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아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반려동물 민간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마. 반려동물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9. 12.  
발 의 자: 홍순서·박윤갑·김준수  
          ·최승기·유은희 의원(5인)  
관 설 자: 김학업·김미연·장판정  
          ·이만홍·송 이·고신희  
          김원진 의원(7인)

**1. 제안이유**

- 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장례문화 정착이 필요한 상황임
- 나. 그러나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불법 매장,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죽은 후에 보호자가 겪는 상실감, 교육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아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반려동물 민간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반려동물 실험조사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비밀부사용서 일부

다. 환 의: 경제정책과(추진물음됨) 합의 완료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의 사할 시 적절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애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설장의 책무) ① 구설장은(이하 "구설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설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구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종별별치와 관련한 설문 조사 및 상담
  2. 반려동물 종별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취약계층 종별 지원 및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4. 기타 종별문화 보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종별문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종별업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시구민에게 반려동물 종별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반려동물 종별문화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㉑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개최

- 일 시 : 2025. 9. 28.(일) 10:00~18:00
- 장 소 : 맑은물빛공원(인천 서구 당하동 1229-11) 및 매천변 일대
- 주 최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반려동물공존센터
- 주 관 : (사)도로시지켜줄개, (주)반려동물
- 참 석 : 100여명(소속 의원, 반려인 및 비반려인)
- 주요내용
  - 인천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공존센터와 공동으로 댕이냥이와 함께하는 힐링산책 행사를 개최함. 주관 기관으로는 (사)도로시지켜줄개와 (주)반려동물이 참여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료
  -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됨.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 이번 ‘모두의 러닝데이’ 행사에서는 마라톤과 플로깅 활동, 경품추첨, 다양한 체험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등이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 반려견 건강 간식 패키지,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음.
  - 본 행사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소통을 통해 인식 격차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생명권에 기반한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문화 캠페인의 필요성을 확인함.

○ 관련사진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개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개최

 A colorful flyer for a pet-friendly event. The title is "댕이냥이와 함께하는 세 번째 힐링산책" (3rd Healing Walk with Dangi-nyangis). Below the title, it says "모두의 러닝데이" (Everyone's Running Day) and "우리 모두 달려요! 사람도 🏃, 댕댕이도 🐕, 지구도 🌍!". The flyer features illustrations of a man, a woman, and a child running on a path with a dog. At the bottom, there is a QR code and a list of details:
 

- 📅 일시 | 2024. 09. 19 (목) **반강 후** 9:00, 09. 28 (일) 10:00 ~ 18:00
- 📍 장소 | 양근물빛공원(인천 서구 달하동 1229-11) 및 배천원 앞대
- 👤 참가대상 | 반려인, 비반려인 누구나
- 🎁 혜택 | 기념품, 관주매달, 반려건강식패키지
- 🏠 주최 |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동물공존센터
- 👥 주관 | (사)도르사자카츄개, (주)반려동물

 Logos for the organizing organizations are at the bottom.

## 10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협약식

- 행사명 :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 업무협약식
- 일시 : 2025. 10. 14.(화) 15:00
- 장소 : 의원간담회장
- 협약주체 : 서구 ↔ 관내 동물장묘업체 2개소[(주)더포에버, (주)어게인]
- 참석 : 구청장, 소속의원, 협약 업체 2개 대표 등 약 20여명
  - 홍순서(대표의원), 박용갑(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김춘수(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유은희(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백슬기(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주요내용
  -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Pet Humanization)을 확산시키고, 서구민에 대한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으로 반려인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장례를 통해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식을 진행
  - (협약사) ① 서구민의 모든 반려동물의 화장비용 20% 감면  
 ② 화장 후 봉안할 경우 봉안비용 10% 감면
  - (서 구) 구민이 협약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기간: 협약체결일~'26. 6. 30.(요청 없는 경우 자동 연장)

### ✓ 협약기관(동물장묘업) 현황

상호	권리주체(대표자)	세부업종	소재지
(주)더포에버	(주)더포에버(박성교)	장례·봉안·화장(2기)	설원로 79(대곡동)
어게인	(주)어게인(진광자)	장례·봉안·화장(2기)	원당대로262번길 40(오류동)

○ 관련사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협약식(10.14)**



## ㉑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개최

- 행사명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개최
- 일시 : 2025. 11. 1.(토) 13:00
- 장소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신현동 산 33)
- 주최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경제정책과(축산동물팀)
- 참석 : 연구회 및 구청장, 서구순찰대 대원 등 약 100여명
  - 홍순서(대표의원), 유은희·백슬기 의원(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 구청장, 경제정책과장, 서구 순찰대 대원 60여명 등
- 행사내용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식전행사 (13:00~14:00)	13:00~13:49	50'	체험프로그램 (반려견 장애인물 체험 카팅 타구장 만들기)	행사 용역업체 (유기견 없는 세상)
	13:50~13:59	10'	행운권 추첨	사회자
본행사 (14:00~14:20)	14:00~14:04	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2	8'	인사말씀 및 축사	내빈
	14:13~14:20	8'	기념촬영 및 폐회	내빈, 사회자
식후행사 (14:20~15:30)	14:20~15:30	70'	서구 순찰대 합동 순찰 등	대원 30여명

### ○ 진단 주요내용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구 증가에 맞춰 반려견 전용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서구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상시 개방으로 진행되지만, 추후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자로 배치하여, 당초 방침에 따라 소형견 전용으로 활용되고, 비반려인과 공존할 수 있는 팻티켓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11.1)



## 12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행사명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시 : 2025. 11. 10.(월) 10:30~15:00
- 장소 : 의원간담회장 및 관내음식점
- 주최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 참석 : 22명(의원 5, 자문위원 4, 연구용역 2, 관계공무원 11)
  - 소속의원: 홍순서(대표의원), 박용갑·김춘수·유은희·백슬기 의원
  - 자문위원: 주경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 김중휘 반려동물공존센터 부회장, 이효정 (사)도로시지켜줄개 대표, 이다슬 (주)펫토피아 대표
  - 연구용역: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문수원·김종섭 박사
  - 서구청: 윤경태 경제국장, 백승호 경제정책과장, 장채현 축산동물팀장, 축산동물팀(오현이·고민수·우지원 주무관)
  - 서구의회: 김창우 환경경제전문위원, 박상선·제준호 주무관, 김영덕·장익준 정책지원관,
- 세부 행사계획

구분	시간		주요 내용
개회식	10:30~10:40	10'	개회식 (대표위원 인사, 참석자 소개, 기념촬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10:40~11:50	50'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문수원 박사)
	11:50~12:30	40'	질의응답 및 토론
정책간담회	13:00~15:30	150'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연간 활동 보고, 서구반려동물 사업 평가 및 정책제언

##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발언 정리

### ○ (문수원 박사) 정책연구용역 책임연구자

- 서구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공공 반려견 놀이터 수요 급증 상황 설명(1인가구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
- 대규모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구 특성상 권역별로 분산해 5만 m<sup>2</sup> 내외의 소형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전략 제안
- 국내외 사례와 법률·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서구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방향 소개

### ○ (홍순서 의원)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지난 활동을 소개하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조성의 중요성 강조
- 주요 활동 성과로 거주지 인근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과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어 왔던 반려동물 사체를 생명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관내 합법적인 장묘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서구민의 혜택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발표
- “반려동물은 가족이며, 생명 존중의 가치 아래 이제 공공영역에서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있는 반려동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인프라 확충과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와 교육 강화 필요성 언급

○ 박용갑 부의장(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위원)

- 반려동물 순찰대 선발 심사 및 발대식 참여 과정에서 관내 반려인의 참여 열기와 반려견 놀이터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확인, 특히 반려동물 순찰대는 당초 예산을 넘어 높은 지원율로 총 89팀이 선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대 활동이 활발함을 확인
- 해당 부서인 축산동물팀의 노력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관내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함을 강조

○ 김춘수 의원(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위원)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려동물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한 팀이 되어 지역 내 산책과 순찰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점검 및 위험요소 발견, 이를 경찰과 자치구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임.
-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이 방법·안전운동으로 전환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이웃 돌봄 문화를 촉진해 범죄 예방, 위험사고 방지뿐 아니라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올바른 펫티켓 정착 등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 했다고 평가함.
- 특히 서구의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행정과 시민이 협력하는 주민참여형 정책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 혁신사례라 할 수 있음

○ 유은희 의원(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위원)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대표발의 경험 소개, 특히 집비둘기와 같은 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을 강조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경우 먹이주는 주민과 피해보는 주민 간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많은 데 본 조례를 통해 주민간 갈등 해결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음

○ 백슬기 의원(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위원)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제정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의 의의에 대해 언급함.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었고, 합법적인 처리도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 할 정도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생명권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존엄한 장례문화와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합법적인 동물 장묘 업체와 서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그동안 불법 매장 및 유기,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 있었다 판단함.

○ 주경숙 회장(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자문위원)

- 그 동안 서구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수요 대비 충분하지 못했다 판단함. 이번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구 반려동물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

진단하고, 여러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많지만, 아직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디다는 느낌임.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계기로 행정이 반려동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는 5kg 이상의 대형견도 뛰어놀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함. 그리고 앞서 연구용역 발표자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5만㎡의 소형 반려견 놀이터가 특화시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형 놀이터가 형성된 후 이를 중심 거점으로 소형 놀이터가 특색 있게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봄. 따라서 여건에 맞는 소형놀이터와 함께 대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윤경태 경제국장(서구 반려동물 정책 부서장)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물과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향후 서구 반려동물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11.10)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11.10)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이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구반려동물 사업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 1. 서구반려동물 입법·제도 개선 제언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연구회 활동을 통해 두 건의 신규 조례를 제정함.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오랫동안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임. 주택가 골목이나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집비둘기 등 유해 조류에게 먹이 주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배설물 및 분변 문제로 인한 위생 및 악취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금지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등을 담은 조례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주민간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고, 해묵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장례문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장례문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을 생명권에 기반한 존엄한 존재로 인식을 전환하고, 합법적인 민간 동물장묘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구민 혜택을 증진 시킨 조례임. 민선 8기 공약 중 반려동물 놀이터와 훈련장,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반려동물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했던 상황. 연구

회는 관내 합법적인 동물 장묘업체(더포에버·어게인) 2곳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 혜택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장례문화 지원 조례는 반려동물을 생명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과거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생명권을 지닌 가족 같은 존재로 적절한 장례절차와 문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2. 서구 반려동물 사업 진단 및 보완

- **(동물 보호·복지 사업)** 기존 서구 내 반려동물 정책과 사업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함. 서구는 2025년 동물보호 복지 분야 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TNR(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조 보호비 지원,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함.(※ 별첨)
- **(핵심사업)** 민선 8기 공약사항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의 경우, 반려동물 놀이공원(테마파크)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장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포함되어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각 시설 별 추진 전략(사업예산 확보)을 변경 수립하여 공약사업을 추진
- **(신규 사업)** 2025년 신규사업으로 ‘반려견 순찰대 선발 및 운영’ 사업을 진행함.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통해 반려인의 생활 안전 및 공동체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통해 목줄·배변 등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 (진단 내용) 연구회의 집행부 반려동물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서구의 경우 반려인들의 반려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충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축산동물팀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3.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① (통합적 반려동물 관리 정책 체계 구축) 반려동물 등록, 건강관리, 유기동물 방지 등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 (반려동물 친화 공간 및 시설 확충)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반려동물 공용 공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③ (반려문화 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주민 대상 책임 있는 반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내 갈등 완화.
- ④ (민관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동물보호단체, 복지기관, 행정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반려동물 문화 확산.
- ⑤ (유기동물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 정책 보완) TNR 사업 등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강화와 동물복지 기준 엄격화, 관련 조례의 지속 개선 및 집행력 강화.
- ⑥ (맞춤형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 개발) 노령견 돌봄,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도입 제안.

제1차 정책간담회(현대일보 3월 27일)

현대일보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009면 인천

# “반려·비반려인 모두의 의견 반영 정책 수립”

##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간담회 반려동물 놀이공원·장묘시설 조성 등 논의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 의원 홍순서, 이하 연구회)는 26일,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과 연구회가 협력하여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약사항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약을 조정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관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 조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민간 동물장묘업체 협약을 통한 장묘 서비스 개선, 반려동물 보호 및 책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서구청 경제정책과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의회에 제언하고, 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구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angyh8340@naver.com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인천 서구의회 제공)

## 제1차 정책간담회(아시아일보 3월 28일)

아시아일보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010면 지방

###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정책간담회 개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와 책임 문화 정착 방안 마련 모색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28일, 민선 8기 장미시장 7·8차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저탄소 친환경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정책팀과 연구회가 합체해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심의하고, 향후 비법률 조처방안 위해 시·군·도, 중앙 정부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비 부지 및 예산 확보와 이해당사자 조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

려동물 놀이공원 조성과 조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간 불특정다수에게 장묘를 통한 장묘 서비스 개선, 반려동물 보호 및 학업 준비 등 학업을 위한 정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도 다뤘다.

특히, 서구청 경제정책과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파악해 지원하고, 연구회와의 협력을 통해 유호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회 총무서 비서관장은 "이번 간담회와 시·군·도, 중앙 정부를 연구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28일, 민선 8기 장미시장 7·8차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저탄소 친환경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의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서구에 있는 반려동물 정책의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기서

## 제1차 현장방문(매일신문 3월 28일)

매일신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008면 행정

### 서구의회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정책 방안 모색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방문

안원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최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를 제1차 현장방문을 했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서구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서구 내 반려동물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총무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김준수, 유은희, 백승기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조성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에 적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 경제국 최창수 국장, 김형우 경제정책과장, 황재현 축산동물팀장 및 관련 담당자도 함께했다. 연구회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1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인선/정책수기자 moh@seonmaeil.kr

# 제1차 현장방문(현대일보 3월 28일)

현대일보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004면 종합

## 놀이터 등 반려동물 친화 특화정책 벤치마킹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방문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가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산=김민우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우(새누리당) 등 7인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제1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 조성의 목표로 서구 내 반려동물 행복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홍순우 대표의원

을 비롯하여 이원길, 김춘희, 유근표, 박순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조성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에 적합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의 중요한 배경은 인천에서 서구 공대시장이었던 '반려동물 놀이공원' 철거사업 조성 및 지원 조치가 일부 조항일 예정이다. 기존 공작의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의 공금 용도시설 건립을 관련 법조항이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조달청 기간 중립정보업체에서 입찰했다. 이들을 통한 동물장려금을 지원으로 변경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변경된 정책이 서구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1차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연구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시설 관리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협력 사업,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반려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반려동물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순우 대표의원은 특히 위장성 안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구에 맞는 실질적인 반려동물 정책의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종석 기자 kwg@hannam.ac.kr

## 제1차 현장방문(경도신문 3월 28일)

경도신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005면 정치



### 서구반려동물정책연,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 현장방문

인원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지난 26일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해 제1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서구 내 반려동물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 박용강, 김준수, 유은희, 백슬기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조성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에 적합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서구청 경제국 최창수 국장, 김창우 경제정책과장, 장재현 축산동물팀장 및 관련 담당자도 함께했다.

이번 현장방문의 중요한 배경은 민선8기 서구 공약사항이었던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계획이 일부 조정됨 예정이다.

기존 공약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과 공공 장묘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 조성 및 민간 동물장묘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동물장례비용 지원으로 변경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변경된 정책

이 서구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1차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는 국내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공간으로, 반려동물 놀이대, 교육시설, 동물병원, 반려인 편의시설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방전에서 연구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안 사항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관련 공공-민간 협력 사업,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반려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해 성공적인 반려동물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 대표의원은 제1차 현장방문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구에 맞는 실질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구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친화 정책 강화를 위한 심층 연구를 이어가며, 서구 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기성기자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자문위원 6명 위촉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약속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는 24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전문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재민 연희동물병원 원장, 이효정 사단법인 도르시지켜줄게 대표, 주경숙 반려물공존센터 회장, 김중휘 부회

장, 고준위 행복늘봄협의회 대표, 김용구 범피물 대표 등 수의사 및 동물구호 및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6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책 제안, 연구과제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연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는 다음

과 같이 인사말을 전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며,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위촉되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서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반려동물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홍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 모두가 존중받는 생명친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며, 앞으로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자문위원 자기소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 주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규 기자

아시아일보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010면 지방

# 서구의회 '반려동물 연구회' 자문위원 위촉

## 홍순서 대표의원 "서구에 특화된 반려동물 정책 실현 기대한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24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전문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이재민 연희동물병원 원장, 이호정 사육법인 대표, 주경숙 반려동물공공센터 회장, 김중희 부회장, 고준위 행복농협협의회 대표, 김용구 범저물 대표 등 수의사와 동물 구호 및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6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정책 제안, 연구과제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연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24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전문성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제공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동물은 이제 가족이며,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절실해 요구되는 시대다"면서, "위촉되신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서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반려동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용환기자

##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인천일보 6월 17일)

인천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12면 메트로

### 서구 반려견 순찰대 '댕댕지킴이' 선발심사

총 165팀 지원 - 최종 50팀 선발  
안전 사각지대 등 산책·신고 역할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서구청에서 반려견 순찰대인 '우리마을 댕댕지킴이' 선발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65팀이 지원했으며, 구는 이 중 50개 팀을 선발해 지역 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탑을 이뤄 산책과 순찰을 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해 위험 상황을 경찰 및 차차구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순찰대로 선발되면 순찰 용품 제공, 순찰대 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 활동팀 표창, 합력 동물병원 의료 재능기부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날 심사는 1·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1차에서는 지원동기와 반려견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1차 합격팀을 대상으로 보호자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앉아·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대형견)에 대한 반려견 행동 평가가 이뤄졌다.

심사에는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홍순서(국, 갑단동·북로네곡동·원당동·아라동)·박용갑(국, 용리3동·당하동·오

유왕길동·마전동)·김준수(민, 감암령서동·연희동)·유은희(국, 비래)·백승기(민, 권암령서동·연희동)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홍순서·백승기·유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는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홍순서 대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 활동을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기자 hye@schonid.com

##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경기도민일보 6월 17일)

경기도민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13면 지역

### '반려견 순찰대' 우리마을 댕댕지킴이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선발심사 참여

인천 서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리마을 댕댕지킴이(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를 지난 15일 구청에서 개최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탑을 이뤄 산책과 순찰을 하면서 인천 사각지대를 정밀해 위험상황을 경찰 및 차차구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순찰대로 선발되면 순찰용품, 순찰대 활동 인증서, 우수 활동팀 표창, 합력 동물병원 의료 재능기부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반려예방, 재난 안전 등 순찰대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순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전문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65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는 이 가운데 50개팀을 선발해 지역 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1차에서는 지원동기와 반려견 등록 여부 등 기본 자격을 확인했고 2차에서는 1차 합격팀을 대상으로 보호자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앉아·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대형견)에 대한 반려견의 행동을 평가했다.

이날 심사에는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순서(국, 갑단동) 소속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홍순서·박용갑·김준수·유은희·백승기 의원은 공정한 심사와 함께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탤다.

2024년 '인천 서구 반려동물 운영 조례'를 발의·제정에 본 사업을 전도적으로 추진한 홍순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범활동뿐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에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 기초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은구 기자 park777@naver.com

##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매일신문 6월 18일)

**매일신문**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006면 메트로

###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진행

인천 서구는 최근 구청에서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마을 냥냥지킴이(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는 총 166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그 중 50팀이 선발돼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반려견 순찰대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한 팀을 이루어 산책과 순찰을 하면서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경찰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순찰대에 선발되면 순찰 용품과 활동 인증서, 우수 활동팀에 대한 표창이 제공되며 협력 동물 병원의 의료 재능 기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순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반려견 행동 전문 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선발 심사에는 서구의학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천/영향수기자 ritchell@yonmae.co.kr

**중부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15면 사람들

## 서구의회 '반려견 순찰대' 선발심사 참여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14일 구청에서 개최된 '우리마을 댕댕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참여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홍순서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김춘수·유은희·백슬기 의원은 공정한 심사와 함께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에 힘을 보탤다.

이번 선발 심사에는 총 165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구는 이 가운데 50개 팀을 선발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

작할 계획이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팀을 이룬 순찰대는 산책과 순찰을 하면서, 안전사각지대를 점검해 위험 요인을 경찰 및 자치구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서구 반려동물 운영 조례'를 발의·제정하는 등 이번 사업을 주도한 홍순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방법 활동을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 인천 서구 "비둘기에 모이 주지 마시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 조례 통과



인천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본보 5일자 9면) 인천 서구가 말 빠른 조처에 나섰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유은화 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차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공원, 문화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곳을 지정하고 먹이

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수만~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이 밖에 농수산업이나 비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 고라니, 일부 조류 및 어류 등도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도심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대책에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금지구역 목록

**본보, 시민들 '비둘기 피해' 호소 지적  
멧돼지·고라니 등 포함 '과태료 부과  
정확한 액수·금지구역 목록 확정 예정'**

등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 짝 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비둘기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의 설치에만 그쳤다. 구는 이번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돼 비둘기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하반기 계도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과태료 액수 및 금지구역 목록

등 세부내용을 전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이번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으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인천 지자체들에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간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면서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박기홍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네 지킴이' 본격 활동

인천 서구 '2025서구순찰대' 발대식  
 동물 등록·반려견 신학 예절 풍 풍보  
 구민 생활불편·위험요인 등 발견 편  
 안전신문고에 신고... 자율 봉사활동



인천시 서구는 최근 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서구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전했다.

서구순찰대 사업단 안희정 단장과 보르자과 함께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 등록, 반려견 신학 예절 등을 홍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 및 위험요인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통째 신고하는 봉사활동이다.

발대식에는 김병석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원, 순환대원과 가족 및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순찰대원에게 인명,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위험성 등을 권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순찰 방법 및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구는 반려동물 양육자와 반려견을 대

함으로써 지난 달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구순찰대원 모집을 진행했다. 신청한 165명에서 한 헌문주의 열려한 참가자를 거쳐 최종 89명을 선발했다.

김병석 구청장은 "반려동물이 사회의 일원

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구민이 모두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chunhyeol@incheon.co.kr](mailto:chunhyeol@incheon.co.kr)

# 서구, '2025년 서구순찰대' 발대식 개최...총 89팀 선발



▲ 지난 24일 인천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서구순찰대' 발대식 현황 모습. [사진제공 = 서구청]

## 반려견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 봉사활동 본격 시작 "반려동물도 사회 구성원-안전한 서구 위해 협력"

인천 서구구립 김병석는 지난 24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서구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발대식 주무는 '2025년 서구순찰대' 사업은 반려견과 보호자를 함께 자율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동물 등록과 '반려견 신학 예절'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불편 사항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형태로 봉사활동이다.

구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인명 등을 양육자로 부터 오는 순찰로 대원을 모집했으며 총 165명의 신청자 중 헌문가 참가자를 거쳐 최종 89팀을 선발했다. 봉사 활동에는 반려견의 대의·대리 안양, 휴무 기간에 대한 문의사항 여부 등이 포함됐다.

발대식에는 김병석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원, 순환대원과 가족,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구는 순찰대원에게 활동방법을 소개하고, 반려

견과 보호자를 위한 활동을 권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순찰 방법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김병석 구청장은 "반려동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구민 모두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5일 지역 반려동물 화장터 2곳을 방문해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 및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사진=서구매체)

## 반려동물 장례 실태 및 운영 현황 점검

###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지역 반려동물 화장터 2곳 찾아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5일 지역 반려동물 화장터 2곳(어게인·더포에비)을 방문해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 및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구의회 대표의원 홍순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 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시설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각 시설에서는 운영 실태와 서구민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모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인프라 실태

및 운영현황 점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관련 서구민 해백 증진 방안 모색 △서구 반려동물 관련 사업 내용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특히 서구민 대상 장례비용 감면방안, 공공지원 정책 도입, 장례서비스 질 향상,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책 연구를 통해 서구민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서구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도 마련과 장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복수 기자

## 인천일보

2025년 8월 7일 목요일 012면 메트로

### 반려동물 화장터 현장 점검 서구의회 정책연구회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지난 5일 어계인, 더포에버 등 관내 반려동물 화장터 2곳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홍순서

훈국, 김단동·블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5명, 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책 연구를 통해 서구민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책리거지hye@incheonilbo.com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동물 장례 실태 확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5일, 관내 반려동물 화장터 2곳(어계인: 오류동 434-119, 더포에버: 대곡동 361-2)을 방문하여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 및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구의회 대표의원 홍순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 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시설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각 시설에서는 운영 실태와 서구민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려동물 보호자

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모여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인프라 실태 및 운영현황 점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관련 서구민 혜택 증진 방안 모색 ▲서구 반려동물 관련 사업 내용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책 연구를 통해 서구만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정규 기자

# 시민일보

## 2025년 8월 8일 금요일 004면 의회&공무원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혜택등 논의

### 지역내 화장터 2곳 방문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최근 지역내 반려동물 화장터 2곳을 방문해 화장터의 인프라 실태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정책 및 혜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구의회 대표의원 홍순서를 비롯한 소속 의원 5명, 자문위원 등 전문가 7명,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장례식장 시설 점검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각 시설에서는 운영 실태와 서구민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모여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인프라 실태 및 운영현황

점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관련 서구민 혜택 증진 방안 모색 ▲서구 반려동물 관련 사업 내용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특히, 서구민 대상 장례비용 감면방안, 공공지원 정책 도입, 장례서비스 질 향상,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 역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정책 연구를 통해 서구민의 모범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서구민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도 마련과 장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전국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 발의(현대일보 9월 26일)

현대일보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9면 인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기준점 세워 선도하길”

구례희 의원연구단체 전국최초 지원조례 발의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

“대한민국 최초 조례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구례희 의원연구단체가 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의회를 통과시킨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구례희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의 사별은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의 사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 발의는 구례희 의원연구단체가 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의회를 통과시킨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구례희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의 사별은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의 사별은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 발의(일간경기 9월 26일)

일간경기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4면 중판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발의

인천 서구의회, 전국 최초  
유은희 의원 등 5인 공동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유은희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가 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의회를 통과했다. 유은희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의 사별은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로서, 반려동물의 사별은 많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는 반려동물의 사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같은 계기를 서신 생활에 넣었는 못지 않아”라고 말했다.



서구반려동물장례문화연구회

## 인천서구, 전국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발의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에 대한 존엄한 장례문화 정책방향 제시”

인천 서구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반려동물 사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에 걸맞는 장례절차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홍순서·박용갑·김준수·백슬기·유은희 의원 5인이 공동발의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

도록, 생명권에 기반한 장례 절차와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인해 가족들이 겪을 불안과 우울,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장례과정을 통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절차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홍보 ▲동물복지 및 도시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인천 서구, '땡이냥이와 함께 하는 힐링산책' 성료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 홍순서)와 반려동물공존센터(회장 주경숙)가 공동 주최한 '땡이냥이와 함께하는 힐링산책' 행사가 28일 당하동 맑은물빛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 이번 '모두의 러닝데이' 행사에서는 마라톤과 플로깅 활동, 경품추첨, 다양한 체험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등 즐길거리

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 반려견 건강 간식 패키지,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 이웃이자 존중받는 가족"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 수 있는 정책과 행사를 지속 확대해 모두가 행복한 생명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경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도 "비와 함께한 이번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함께 즐기는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다"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용배 기자

## 인천 서구의회

### '댕이냥이와 함께 하는 힐링산책 행사'성황리에 개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 홍순서)와 반려동물공존센터(회장 주경숙)가 공동 주최한 '댕이냥이와 함께하는 힐링산책'행사가 지난 28일 당하동 맑은물빛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 이번 '모두의 러닝데이' 행사에서는 마라톤과 플로깅 활동, 경품추첨, 다양한 체험부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등

즐길거리가 가득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 반려견 건강 간식 패키지, 기념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 이웃이자 존중받는 가족"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행사를 지속 확대해 모두가 행복한 생명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경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도 "비와 함께한 이번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함께 즐기는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다"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 기자 / [jonghapnews.com](http://jonghapnews.com)



## 서구, 반려동물 장례비용 20% 할인 혜택

지역 2곳 동물장묘업체와 '맞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대

서구가 14일 지역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반려동물 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구민들은 협약을 맺은 동물

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 비용 20%, 봉안 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기관은 쿼터포에버와 쿼이게인으로 향후 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 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관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협약 추진(경인종합일보 10월 15일)

### 인천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협약 추진

이번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14일, 국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인천 서구의회

동물장묘업체와 쿼이게인과 쿼터포에버와 함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쉬운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김성웅 기자이다. 이번 협약에는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승규, 박승기, 유근희, 조영길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조례 제정과 협약 추진에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함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명존중을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구민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기자 / [www.inhnews.com](http://www.inhnews.com)

# 서구, 반려동물 장례비용 20% 할인 혜택(중부일보 10월 16일)

중부일보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007면 정치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선도 감범석(가운데) 인천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 동물장묘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나선다

동물장묘업체 2곳과 업무협약  
화장 20%-봉안 10% 감면 적용

인천 서구가 지난 14일 구내 동물장묘업체 2곳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구 주민은 더모에비(설면로 79-1층), 아게인(왕당대로 252번길 40) 두 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 비용 20%, 봉안 비용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 '서구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소속의 원들이 공동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연구회 홍순서(국민의힘·서구비)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감범석 서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이

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겪을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순간이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서구가 앞장서서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서구를 위해 설립된 반려동물 연구회에는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용갑(마)·유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은수(라)·백승기(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가주기자]

## 수도일보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005면 종합

### 인천 서구, 서구민 반려동물 장례비용 20% 할인 혜택 제공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주)더포에버와 (주)어게인이 참여했고, 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과 박용갑, 백슬기, 유은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정책 확대에 공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창열 기자



# 반려동물 '존엄한 마지막길' 전국 최초 기초단체 명문화



주목! 이 조례 >20<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구민 위로' 비용 지원·인식개선 홍보 등 명시 현황 파악 정기조사·정책연구 실시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펫 케어, 동물복지, 미용 등 반려동물 산업은 어느덧 우리 사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KB금융그룹이 지난 6월 발표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이드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가꾸는 국내 인구는 1천564만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의 29.9%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펫'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이 그렇다.

사망한 반려동물은 폐기물로 취급된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물론 가축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미비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천 서구의의회는 반려동물이 존엄한 생명에 걸맞은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조례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참자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홍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의의회 홍순서 의원.

/서구의의회 제공

보 ▲동물복지 및 도시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는 반려동물 장례문화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서구의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과의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구민들이 겪을 불안과 우울,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 지자체가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런 긍정적인 문화를 도시에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국·서구부) 서구의의회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고, 반려동물 인구도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맞춰 지자체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병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서구의회, '서구1호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중부일보 11월 4일)

중부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015면 사람들

## 서구의회 '서구 1호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지난 1일 신현동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서구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개소식에는 감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국민의힘·서구비)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국민의힘·비례)·백슬기(더불어민주당·라) 의원,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팀' 대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순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놀이터는 약 1천㎡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 연말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최기우 기자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견 놀이터 개소...

### "반려동물공존도시 만들어가는 출발점 되길" [도민일보 11월 3일]

####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반려견 놀이터 개소

##### "반려동물공존도시만들어가는 출발점 되길"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개소식에는 감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은희, 백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팀' 대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팀' 대원 60여 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전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창규 기자]

## 서구, 원신근린공원 내 공공 반려견 놀이터 첫 개장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구 최초의 공공 반려동물 전용 시설인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정식 개장했다.

지난 1일 오후 원신근린공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사)도로시지켜줄게, 서구 순찰대(반려견 순찰대) 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cm 미만, 체중 15kg 미만의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는 24시간 개방되는 무인 운영시설로, 반려인 스스로의 이용 문화 정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이번 시설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 본행사와 커팅식,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반려견 장애물(어질리티) 체험, 반려견 장난감(터그)·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행운권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인천/윤길상 기자 yoon789@sudokwon.com

반려동물 친화 공간 확대 나선다… 서구, 구 최초 원신근린공원 내  
공공 반려견 놀이터 정식 개장(경인매일 11월 5일)

# 반려동물 친화 공간 확대 나선다

서구, 구 최초 원신근린공원 내 공공 반려견 놀이터 정식 개장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구 최초의 공공 반려동물 전용 시설인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정식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원신근린공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사)도로시지켜줄게, 서구 순찰대(반려견 순찰대) 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cm 미만, 체중 15kg 미만의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는 24시간 개방되는 무인 운영 시설로, 반려인 스스로의 이용 문화 정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이번 시설을 조

성했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 본행사와 키팅식,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반려견 장애물(어질리티) 체험, 반려견 잠난감(터그)-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행운권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반려견 놀이터 개장은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문화가 공존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개장을 계기로 반려동물 친화 공간 확대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김경호기자

xjh6114@kmaeil.com

# 서구, 원신근린공원 내 공공 반려견 놀이터 첫 개장(수도권일보 11월 5일)

기호일보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013면 중판



인천 서구 원신근린공원에서 열린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모습이다.

인천 서구 제공

## 인천 서구 반려견 놀이터에 놀러오세요

원신근린공원에서 개소식... 이슬리아·장난감 만들기 체험 등 운영

인천시 서구는 서구의회 서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지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공공 반려견 놀이공원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고 5일 전했다.

개소식은 구본서, 서구경찰을 비롯한 서구의회 안대영목장정책연구실, 애도로서지켜줄게, 서구 순찰반(반려견 순찰대) 등이 30여 명이 참여했다.

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결

핵심 연계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견친한 반려 문화 조성을 목표로 조성했다.

이날에 문을 연 반려견 놀이터는 약 1천여㎡의 숲·소형견 전용 공간이다. 동물 통목을 강화한 채고 40cm 미만, 체중 15kg 미만의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강아줄(이슬리아) 체험, 반려견 장난감(장난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구 순찰반'은 반려견과 함께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순찰하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50여 명의 반려견 순찰대가 선발돼 활동 중이다.

행사 후에는 반려견 순찰대(서구 순찰반) 내원 30여 명과 강령 앞대에 서 있는 순찰견과인을 기념했다.

종교단체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 주변을 돌아 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점검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

이용 분위기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반려견 놀이터는 24시간 개방되는 무인 운영시설로 반려인 스스로의 이용 안전에 철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순찰반은 단 순찰 치안 활동을 넘어 반려동물에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hongsc@incheonilbo.com

## 일간경기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004면 종합

#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

###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

인천 서구의회 반려동물 정책연구회가 1일 서구와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가졌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 조성된 것으로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댕' 대원 등 60여 명이 참석, 구의 새로운 반려 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또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는 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365일 연중 무휴로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홍순서 대표 의원은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공존 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정책연구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원신근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식.

##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원신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 개최

인천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지난 1일 서구청 축산 동물팀과 공동으로 원신근린공원에서 서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구 최초로 기존 공원 일부를 반려견 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조성된 사례로, 반려견 놀이터는 약 1,000㎡ 규모의 중·소형견 전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개소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의 홍순서 대표의원을 비

롯해 유은희, 배슬기 의원,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대' 대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반려문화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

행사 후에는 서구 반려견 순찰대 '서구 순찰대' 대원 60여 명과 함께 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등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이는 서구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 연계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 보고회 열어(일간경기 11월 12일)**

**일간경기**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004면 종합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 보고회 열어**

인철 서구의회 연구회  
반려 동물정책 방안 논의

인철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12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직원들과 자원위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에 맞는 반려동물 놀이기구와 조성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동물정책연구소 윤수일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반려동물 안락 사육 수의 증가와 공간 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대규모 공원부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협적 기종인 8만㎡ 이하의 소형 공원과 제한 면적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조력 방안이 필요



인철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12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진우 기자

하다는 지적과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에 기계·교육관·체육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도와 입점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에서는 대형견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와, 관리자 부서의 인력 지원 시고 책임조 보상 문제, 반려당외 해설

중 차려 볼 견강한 반려 인화를 위한 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서구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안을 검토,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구형 반려동물 공간 조성이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윤수일 대표 의원은 “반려동물과 사

랑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간할 수 있는 정책 부의 시차없이 연구해 나갈 소중함 된 지역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해갈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훈 기자



최종보고회

## 인천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10일 '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공공 시설 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문수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대규모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법적 기준인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공원 및 하천 변에 맞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카페, 교육장,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로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서구의회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진환 서구의회 제공

서구의회 반려동물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소형공원에 맞춘 반려동물 놀이터 필요”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대표의원 홍순서)는 10일 '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구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공공 시설 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문수영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대규모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법적 기준인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공원 및 하천 변에 맞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조력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동시에 증장 기적으로서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카페, 교육장,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로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서구의회 홍순서 대표의원, 박용갑·김춘수·유은혜·백승기 의원 등이 참여해 관계자

들과 실무적 논의를 함께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의 차이가 큰 만큼 상호 소통을 전제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서구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kinyh12@naver.com

## 인천 서구의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 모색

인천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는 10일 ‘서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특성에 맞는 반려동물 공공 시설 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문수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대규모 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어, 법적 기준인 5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공원 및 하천 변에 맞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안했다.

동시에 증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카페, 교육장,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로의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서구의회 홍순서 대표의원, 박용갑·김춘수·유은희·백슬기 의원과 주경숙 반려동물공존센터 회장, 김중휘 부회장, 이효정 도시시지켜줄개 대표,

펫토피아 이다슬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구청에서는 윤경태 경제국장, 백승호 경제정책과장, 장채현 축산동물팀장 등이 참여해 실무적 논의를 함께했다.

홍순서 대표의원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의 차이가 큰 만큼 상호 소통을 전제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서구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시간에는 대형견 이용이 가능한 놀이터 필요성,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 사고 책임 및 보상 문제, 반려인의 배설물 처리와 같이 건강한 반려문화를 위한 운영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형 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서구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안을 검토해,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구청 반려동물 공공 놀이터 확충에 앞장설 계획이다.

임용혜 기자